

도스또예프스끼의 『백치』에 나타난 미(美)의 주제

백 준 현*

1. 서 론

도스또예프스끼(Ф. М. Достоевский)의 예술은 관념(觀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를 거쳐 후기에 오며 이러한 장은 짙은 숲으로 변해 그가 인생을 통해 계속 고민해 왔던 신(神)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들이 심원한 의미를 가지고 작품 속에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관념의 숲에 가려 자칫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미(美)’의 주제이다. 미에 대한 언급이 대체로 그의 작품들 속의 비교적 적은 장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작품 집필 시간에 쫓긴 그의 머릿속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부차적인 모티브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낳기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면, 미의 주제는 거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다른 어떠한 관념들에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치우쳐 표현된 지닌 여타 관념들과는 달리, ‘미’는 현실의 인간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감성과 영혼의 측면에까지 동시에 관련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의 개념은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에서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의 중요성이 여타 주제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잭슨(R. L. Jackson)은, 도스또예프스끼의 관념들은 미의 주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 상명대학교 유럽어문학부 교수

취지에서, “플라톤에서 중세 기독교 미학을 거쳐 쉴러, 샤프브리앙, 셸링 그리고 헤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미와 이상에 대한 개념은 도스토예프스끼 세계관의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지배한다.”라고 평하고 있다.¹⁾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백치(Идиот)』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인 미쉬킨(Мышкин)과,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로 칭해지면서도 서로 성격은 판이한 나스따샤(Настасья), 아글라야(Аглая)가 등장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주요 동인(動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미를 현실적, 이상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그 두 차원의 불협화음을 그리고 있기에 도스토예프스끼의 미 개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적절한 장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에서, 『백치』에서 미의 주제를 담지하고 있는 미쉬킨이란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스토예프스끼적 미관념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미쉬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에 대해 씌어진 작가의 계획안, 편지는 물론 미라는 주제를 통해 그와 연관될 수 있는 여타 작품들의 인물들을 통시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본 론

미의 개념과 관련하여 도스토예프스끼의 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작가가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쉽사리 인식하게 된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 자연에 대한 묘사 등 미의 구상적(具象的) 표현에 접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독자들은 도스토예프스끼의 미관(美觀)은 어떠한 스타일로 나타나며,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의 관념이 담론화되어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러한 난해함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악령(Бесы)』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에 등장하는 샤토프(Шатов)와 드미뜨리(Дмитрий)의 말이다.

1) Jackson, R. L.(1966) 『Dostoevsky's Quest for Form : A Study of His Philosophy of Art』,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Press, p. XI.

Правда ли, будто вы уверяли, что не знаете различия в красоте между какою-нибудь сладострастною, зверскою штукой и каким угодно подвигом, хотя бы даже жертвой жизнью для человечества? Правда ли, что вы в обоих полюсах нашли совпадение красоты, одинаковость наслаждения?

(т. 10. с. 201)²⁾

당신(스파브로킨)이 어떠한 음욕과 짐승 같은 짓, 그리고 인류를 위한 자기 목숨의 희생 같은 공적 사이에서 아름다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확언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이 두 가지 극단적 반대 상황 사이에서 똑같은 미와 똑같은 쾌감을 발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Красота — это страшная и ужасная вещь! Страшная, потому что неопределимая, а определить нельзя потому, что бог задал загадки. Тут берега сходятся, тут все противоречия вместе живут... В содоме ли красота? Верь, что в содоме-то она и сидит для огромного большинства людей... Ужасно то, что красота есть не только страшная, но и таинственная вещь. Тут дьявол с богом борется, а поле битвы — сердца людей. (т. 14. с. 100)

아름다움 — 그건 무섭고도 끔찍한 거야! 무섭다는 건 그것이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데, 신이 수수께끼로서 던져준 이상 그것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 아름다움 속에서는 양극단이 만나고 모든 모순이 함께 존재해... 소돔에도 미가 있을까? 내 말을 믿어, 소돔에도 역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미가 존재하고 있어... 끔찍한 건 미가 단지 무서울 뿐만 아니라 비밀스런 것이라는 사실이야. 거기에선 악마와 신이 싸우고 있는데 그 장소는 인간의 영혼이란 말이야.

위의 두 인용문에서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적인 두 등장인물의 정체성이 미와의 관련 하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혼돈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있다.³⁾

2) 본 논문에서 인용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편지, 계획안, 논문 등등은 모두 Достоевский, Ф. М.(1972-1990)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의 내용에 의거한다. 앞으로는 인용문 옆에 권수(т.)와 쪽수(с.)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3) 이렇듯 미의 관념이 작품의 결정적인 소수의 부분에서만 은유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표현되는 현상에 대해 로스키(Н. Лосский)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는 미가 대단히 고양된(возвышенная красота)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미의 관념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은 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Лосский, Н.(1953) 『Достоевский и Его Христианское Миропонимание』, Изд. имени Чехова : Нью-Йорк, с. 207.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위와 같은 관념적 불명료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도스토예프스끼가 생각했던 미의 본질이 그들에 의해서는 구현되기 힘든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들 속에는, 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등장인물들 자신 역시 관념적 혼돈에 빠져 있다는 일차적 사실만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이렇듯 쉽게 구체화될 수 없는 미 개념을 포착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즉 미에 대한 직접적 언급뿐만 아니라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간의 상호관계를 유추하는 연구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백치』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시켜 본다면, 미쉬킨의 외모와 행동 방식에 대한 고찰이 이러한 연구의 가장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미쉬킨을 외적인 미의 측면에서 논할 때 그의 외모나 자세, 행동 방식이 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눈에 뜨인다. 러시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부터 그는 대단히 비(非)러시아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가 입었던 “소매가 없고 큰 병거지가 달린 넓적하고 두툼한 외투(широкий и толстый плащ без рукавов и с огромным капюшоном. т. 8. с. 6)”는 러시아의 추위에서는 별로 쓸모 없는 궁상맞은 물건이다. 그가 의복을 입는 방식은 러시아에 적응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 всё платье было другое, сшитое в Москве и хорошим портным ; но и в платье был недостаток : <...> уж сшито было на человека, нисколько этим не интересующегося, так что при внимательном взгляде на князя слишком большой охотник посмеяться, может быть, и нашёл бы, чему улыбнуться.

(т. 8. с. 159)

<...> 그의 전체 옷은 달라졌다, 모스크바에서 괜찮은 재단사에게 맞췄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 옷에는 뭔가가 부족해 보였다 : <...> 옷 자체가 유행 같은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위해 지어졌으니 그럴 만도 했다, 때문에 만일 옷기 좋아하는 사람이 공작을 바라보았다면 빙그레 옷을 만도 했을 것이다.

이렇듯 외모나 의복에 대한 무관심, 엉거주춤한 태도, 때에 맞지 않는 행동 등은 그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해 ‘백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외면을 세련되게 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그에게 미의 감각이 부재(不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쉬킨이 미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은 인물의 얼굴을 감지할 때 드러

난다. 예뻐친(Епанчин)의 세 딸과의 첫 만남에서 피쉬킨은 이미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я их лица знаю, т. 8. с. 57)”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그는 세 자매에게 그들의 내면세계가 얼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러한 장면은 평소의 겸손한 피쉬킨의 언행으로 봤을 때 파격적이지만, 동시에 피쉬킨이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한 예민한 본능적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능적 미감(美感)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미에 한정되었을 것이라 보는 아젤라이다의 추측은 정당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 피쉬킨은 스스로 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я свою мысль имел, т. 8. с. 65)”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능적 미감은 그가 지닌 특별한 정서 솜씨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로 돌아와 처음으로 들른 예뻐친 장군 집에서 그는 대단한 정서 실력을 보여준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글쓰기의 문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등장인물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글쓰기, 즉 정서는 『가난한 사람들(Бедные люди)』의 제부쉬킨(Девушкин)과 관련된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열등 의식 때문에 남들이 정서 속에서만 그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을 거부한다. 장래 문학가가 되겠다는 희망은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자연스런 보상심리의 표현이다. 따라서 바르바라(Варвара)에게로 향한 그의 편지 쓰기는 한 사람의 독자를 향한 소박한 형태의 문학적 습작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의 편지 쓰기는 일상에 대한 의미 없는 반복이 되어 버린다. 그의 편지가 바르바라를 묶어둘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내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의 편지 쓰기는 단순한 정서보다도 나올 것이 없는, 대자화(對自化)되지 못한 자기반복 행위가 되는 슬픈 한계를 가진다.

글쓰기의 문제는 『악령(Бесы)』의 주인공 스태브로긴(Ставрогин)에게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던 스태브로긴은 자신이 쓴 『수기(От Ставрогина)』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가에 대한 고백을 시도한다. 그러나 짜혼(Тихон) 신부는 구조적인 측면의 짜임새를 가졌다고 보이는 이 수기의 가치를 단적으로 부정한다. 그는 이 수기의 문제점을 “추함이 수기를 망칠 것이다(Некрасивость убьёт, т. 11. с.27)”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수기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거칠

게 보이려고(Вы как будто нарочно грубее хотите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я. т. 11. с. 24)” 씌어졌으며, 따라서 “스타일상 문제가 있기(немного бы в слоге. т. 11. с. 23)” 때문이다. 즉 찌혼은 스태브로긴의 수기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굴욕감과 쾌감을 동시에 맛보려는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적 의식에 기반한 수기는 자신을 대자적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고백록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에 내, 외적인 미 중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피쉬킨은 스태브로긴처럼 자신의 생각을 슈젯(сюжет)화할 수 있는 글쓰기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글쓰기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가 말하는 마리(Мари)와의 스위스 이야기, 사형수의 심리 묘사 등등은 장황하며 스태일상의 정교함이 다분히 떨어진다. 그가 작품 속에서 보이는 가장 최고 수준의 글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정서가 제부쉬킨처럼 정서의 1차원성에서 끝내 탈출하지 못하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정서의 특징은 남의 필체를 자신의 것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흉내냄으로써 정서의 예술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글씨에 담긴 글쓴이의 성격과 직업도 알아본다. 이것은 그가 정서를 통해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렇듯 외적인 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까지 담지하고 있는 그의 정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피쉬킨은 정서를 제부쉬킨이 갖혀 있던 한계를 넘어 스태브로긴이 달성치 못했던 예술적 미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정서에 있어서도 단순한 차원의 미를 넘어서고 있는 피쉬킨의 속성은 미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리자베타 부인에게 “미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란 수수께끼이니까요(Красоту трудно судить... Красота — загадка. т. 8. с. 66)”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추상적이며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를 단순히 감각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만은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그가 미를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있어 미는 현실세계의 일반적 판단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쉬킨의 이러한 사고방식의 정체는 다음의 두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Удивительное лицо!... и вот не знаю, добра ли она? Ах, кабы добра! Всё

было спасено! (т. 8. с. 32)

놀라운 얼굴이군요!... 그런데 그녀가 선량한지는 모르겠네요? 아아, 선량하기만 하다면! 그럼 모든 것이 구원받을텐데.

В вас всё совершенство... даже то, что вы худы и бледны... вас и не желаешь представить иначе... (т. 8. с. 118)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뿐입니다... 심지어 여위고 창백한 것까지도... 당신을 이와는 다른 식으로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위 첫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피쉬킨은 미 속에는 당연히 선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 통합적 가치를 지니는 미야말로 세계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 미의 전일적(全一的) 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본능적이기까지 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처음 대하는 나스따샤의 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완성된 미는 다른 모든 인간적 자질의 완성까지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나스따샤의 ‘여위고 창백함’마저도, 그녀의 외적인 미가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 심원함과 결합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이 작품의 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주인공에게 부여한 ‘아름다운 인간’이란 명칭 자체의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쉬킨의 정체성을 확정해 나가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대단한 산고의 과정이었다. 10여 차례에 걸쳐 변경된 작품 계획안(計劃案)과 창작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그의 편지들은 이 점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피쉬킨에 초점을 맞추어 『백치』 계획안을 살펴본다면 그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다.⁵⁾ 1차에서부터 3차 계획안까지 유지되어온 남자 주인공의 형상은 겸허와 자부심의 혼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4) 이것은 나스따샤의 미에서 파괴성을 느끼며 “미는 힘이며...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красота — сила... с этой красотой можно мир перевернуть. т. 8. с. 67).”고 말하는 아펠라이다와는 달리, 피쉬킨에게는 세계의 모든 가치는 전일적(全一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조화의 관념이 있음을 시사한다.

5) 『백치』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asiolek, E.(1973) 『Fyodor Dostoevsky ; The notebooks for the Idio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와 Miller, R. F.(1981) 『Dostoevsky and the Idiot ; Author, Narrator and Reader』,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그는 간질 발작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백치라는 소리를 들으며 모욕을 당하지만 병적일 정도의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굴욕감을 조금도 내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향해지는 모욕을 의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겸허 속에는 사회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이 동시에 깔려 있다. 4-6차 계획안에 오면 남자 주인공 형상화의 초점은, 그의 진실한 겸허가 당대 사회의 악에 전염되어 잠식당하는 모습으로 모아지게 된다. 남자 주인공은 미(美)와 선(善)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내부에서 자라난 또 다른 어두운 속성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휘될 기회를 막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집필을 시작한 며칠 후(1867년 12월 초) 작가는 기존의 계획안에 따라 씌어진 원고를 모두 폐기해 버리고 또 다시 완전히 새로운 구상에 착수한다. 궁극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주인공의 이중성이란 틀 속에서 모색해 본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에 대해 문우 마이코프(A. H. Майков)에게 설명하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미 개념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Наконец я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одной и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написал много, но 4-го декабря бросил всё к чёрту. Уверяю вас, что роман мог бы быть посредствен : но опротивел он мне до невероятности именно тем, что посредствен, а не положительно хорош... Давно уже мучила меня одна мысль, но я боялся из неё сделать роман, потому что мысль слишком трудная и я к ней не приготовлен, хотя мысль вполне соблазнительная и я люблю её. Идея эта — изобразить вполне прекрасного человека. Труднее этого, по-моему, быть ничего не может, в наше время особенно.

(т. 28. кн. 2. сс. 239-241. 밑줄은 필자가 한 것) 6)

6)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보다 하루 늦게 조카 소냐(София А. Иванов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같은 맥락에 “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екрасный человек(т. 28. кн. 2. с. 251)”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종종 그 표현을 ‘궁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란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편지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소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положительная неудача(‘궁정적 실패’가 아닌 ‘완벽한 실패’의 의미)”로 표현한 것과, 위의 편지에서 보이듯 ‘посредствен(평범한)’의 반대 의미로 ‘положительно хорош(완벽하게 훌륭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положительно’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뜻, 즉 ‘вполне’와 같은 ‘완벽하게’, 혹은 ‘절대적으로’의 뜻으로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난 계획을 잡아서 쓰기를 시작했지만 12월 4일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말았소. 물론 그렇게 썼어도 평범한 수준은 되었을 거라고 당신에게 확인은 할 수 있소 : 하지만 내 마음에 지극히 혐오감을 일으킨 건 바로 그것이 완벽하게 훌륭하지가 않고 그저 평범했다는 것이었소... 오랫동안 날 괴롭혀왔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난 그것으로 소설을 쓰는 걸 두려워했소, 왜냐하면 내 마음에도 들고 대단히 매력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생각이란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을 그리는 것이요. 내 생각에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소, 특히나 요즘 세상엔 말이요.

위의 편지에서 쓰이고 있는 ‘прекрасный’ 라는 형용어는 기본적인 러시아어의 개념상으로는 단순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지칭하기보다는 ‘대단히 멋진’, 또는 ‘훌륭한’이란 개념으로서 인간의 내, 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와 관련해, 모츨스키(K. Mochulsky)는 위의 ‘прекрасный’를 작품 속 미쉬킨의 선(善)에 연관시켜 ‘morally beautiful(도덕적으로 아름다운)’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⁷⁾ 그러나 모츨스키의 견해는, ‘도덕적 선’을 직접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добрый’라는 단어 대신에 작가가 구태여 ‘прекрасный’를 쓴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прекрасный’라는 형용어를 사용한 것은 ‘добрый’라는 형용어로서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의 차원이 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것이 미쉬킨의 외적인 미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정서 실력을 제외하고 그에게 구상적 미로서 눈에 띄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인간 미쉬킨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각과 생각이 ‘미(красота)’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천성적 겸손으로 인하여 특정한 세계관이나 관념을 설파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미쉬킨이지만, 유독 미와 관련해서는 “미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Красота спасёт мир. т. 8. с. 317)”라고 외치며 미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인간 미쉬킨의 정체성이 미(美)라는 세계관으로 분출되도록 만든 도스토예프스키의 강력한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선(善)을 관념적으로 테제화할 수 있는 미(美)’라는 구도가 작가에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가 자신 내에 이미 선의 자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7) Mochulsky, K.(1971) 『Dostoevsky ; His life and work』, tr. Michael A. Miniha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43.

개념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필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미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바보비치(М. Бабобич)의 견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⁸⁾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두 본질적 양식으로서 선(善, добро)과 미(美, красота)를 제시하면서, 선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의식(сознание)을 한 상태에서의 행위인 반면 미는 어떠한 의식적 준비 작용도 거치지 않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미를 육체적 미와 정신적 미로 구분하면서, 정신적 미란 의식적 선이 아닌 무의식적 선, 이를테면 타고난 정신적 아름다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미 개념이 점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면서 무의식적인 정신적 미가 의식적인 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과 미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의 제부쉬킨은 추악한 현실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과 바르바라의 고결함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로부터 그에게 던져지는 ‘경멸의 목소리’에 눌러 스스로를 훼손한다.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식’은 그것이 충분히 강력해져서 현실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육체적 완성으로서의 미 역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그저 농락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주인(Хозяйка)』에서 악마적 힘을 가진 무린(Мурин)에게 유린당하는 까제리나(Катерина)의 미 역시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피쉬킨에게는 자신의 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이 전제가 된 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천성적인 신뢰감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그에게는 세상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따라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믿음이다. 때문에 그가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운 심미안은 그의 철학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체로서의 그의 본질일 뿐이다.⁹⁾ 이러한 피쉬킨에게 ‘добрый’라는 형용어를 부여한다

8) Бабович, М.(1974) “Судьба добра и красоты в свете гуманизма Достоевского,” 『Достоевский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т. 1, сс. 100-107.

9) 오블로미예프스키는, 피쉬킨이 미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그것을 철학적 지식의 형태로 설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사상가’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

면 그것은 그의 정신세계를 의식적 선의 한계 내에 가두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미쉬킨의 주요 관념으로 형상화한 ‘красота’란, 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정신적 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선과 미의 뉘앙스가 혼합된 ‘прекрасный’라는 단어로써 비교적 유사하게 설명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작가 자신과 미쉬킨에게는 계속해서 ‘красота’로 남아 있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의 이상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화되어 나타나는가? 작가가 미쉬킨에게 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합당한 내적 자질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실현되는가의 여부에 이 작품의 생명력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능력이 달려 있다는 뜻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미쉬킨이 작품 내의 세속적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맞닿아 있다. 미쉬킨이 작품 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는 그를 가난한 기사에 비유하는 아글라야의 말 속에 드러난다.

В стихах этих прямо изображён человек, способный иметь идеал, во-вторых, раз поставив себе идеал, поверить ему, а поверив, слепо отдать ему всю свою жизнь... Там, в стихах этих, не сказано, в чём, собственно, состоял идеал <рыцаря бедного>, но видно, что это был какой-то светлый образ, <образ чистой красоты>. (т. 8. с. 207)

이 시(詩) 속에는 이상을 간직할 줄 알고, 둘째로는 이상을 일단 세우면 그걸 믿고, 믿은 다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전 생애를 그걸 위해 바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가난한 기사>의 이상이 어떤 것인지 시(詩) 속에 구체적으로는 써있지 않지만, 어떤 환한 형상, <티 없는 아름다움의 형상>인 것은 분명해요.

아글라야는 미쉬킨의 정신적 특성을 “티 없는 아름다움(чистая красота)”이라고 비유해 말하고 있다. 즉 그녀는 미쉬킨이 현실에 의해 감염되지 않는,

다고 지적한다. Обломьевский Д.(1976) “Князь Мышкин”, 『Достоевский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т. 2, с. 284.

10) 카쉬나 역시 добро의 개념을 내포한 красота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미적, 윤리적 가치의 완벽한 일치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솔로비요프(В. Соловьёв) 철학의 공통점을 보고 있다. Кашина, Н. В.(1975) 『Эстетика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с. 170.

이상에 대한 완벽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녀의 생각은 피쉬킨의 비세속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 구애되지 않는 강력한 정신세계의 구현이란 것만이 도스토예프스끼가 피쉬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문학적 목표의 최종점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이상을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결코 예술 지상주의, 즉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해야 하는 예술을 지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술과 미의 문제에 대한 도스토예프스끼 자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보프 씨와 예술의 문제(Г.н-бов и вопрос об искусстве)”라는 제목의 글이다. 1861년 2월 『시대(Время)』 지에 실린 이 논문에서 작가는 예술이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우선 비판하면서, 예술은 고유의 존재 이유와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예술은 현실의 좁은 한계 내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들을 ‘미(美)’라는 가장 고양(高揚)된 형태의 욕구 속에 단일화하여 표현하는 장치이다(т. 18. сс. 70-103).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예술이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도스토예프스끼에게 있어 예술화의 과정은 현실을 1차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현실이 창조될 때에야 비로소 참다운 미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¹¹⁾ 이렇게 볼 때, 『백치』의 경우 역시, 이상과 현실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갈등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미의 주제가 가지는 최종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미가 이상과 현실의 차원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에 대한 피쉬킨과 여타 인물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

11) 오졸린스(V. K. Ozolins)는 도스토예프스끼의 이러한 미관(美觀)에 주목하여 『악령』에서의 스페뻬 트로피모비치(Степан Трофимович)의 미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오졸린스는, 스페뻬 트로피모비치의 모든 심각한 결심과 꿈들은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미적인 도피일 뿐이며, 따라서 현실과의 연관성을 전혀 갖지 않은 이러한 관념은 가짜 미학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zolins, V. K.(1976) “The Concept of Beauty in the Possessed”, 『Dostoevsky and the Human Condition after a Century』, edited by Ugrinsky, A., Lambasa, F. S., Ozolins, V. K., New York : Greenwood Press, pp. 102-109.

인 미의 현현(顯現)을 볼 수 있다고 믿는 미쉬킨은 현실에 의해 훼손되어지는 미에 대해서도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는 순결하다’와 ‘나는 더럽혀졌다’라는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통받는 나스따샤의 내면을 즉각적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의 목소리는 물론 그녀의 미를 단지 쾌락의 대상으로서 이용하고 평가하는 주위 인간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목소리이다.¹²⁾ 미쉬킨은 고통 속에서도 순결한 삶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는 그녀의 첫 번째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파악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의 미가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개의 자아 사이를 통과하는 극심한 고통에 그가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그가 보이는 연민은 실제로는 연민이라기보다는, 고통을 견디어내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다름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이며(за честь приму ваше согласие. т. 8. с. 142)” 그녀를 “평생 존경하면서 살겠다(я вас буду всю жизнь уважать. т. 8. с. 142)”라는 그의 말은 감정의 과장이나 충동적 발언이 전혀 아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Так вы такую-то красоту цените?” — обратилась она вдруг к князю.

“Да, такую — ” — отвечал он с некоторым усилием.

“За что?”

“В этом лице... страдания много...” (т. 8. с. 69)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한 美를 높게 평가하신다는 말이군요?” — 그녀가 갑자기 공작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 그런” — 그는 약간 힘을 주어서 말했다.

“그건 왜죠?”

“그 얼굴에는... 많은 고뇌가 있기 때문이죠...”

12) 이런 면에서 볼 때, 이폴리트(Ипполит)의 자살 해프닝에 대해 처음부터 그가 자살 소동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가냐(Ганя), 삐찌쯔인(Птицын), 로고친 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목소리에 대해 어느 한 면만을 보는 사람들이다. 즉 현실의 악에 물든 그들은 인간이 가진 선과 악의 두 개의 목소리중 악의 목소리만을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다. 와시울렉은 만약 그것이 실제로 꾸며진 소동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기에 더욱 허위스런 존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Wasiolek, E.(1964) 『Dostoevsky: The Major Fiction』, Massachusetts : M.I.T. Press, p. 99.

나스따샤의 미모를 사진으로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를 “이상한 아름다움(странная красота!, т. 8. с. 68)”의 소유자로 생각했던 피쉬킨은 그녀의 고통에 직면하면서 그 이상한 아름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눈뜨게 된다. 그것은 현실에 의해 방해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미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고통스런 마음이 그녀의 얼굴에 불러일으킨 아름다움인 것이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피쉬킨은 이렇듯 그녀의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분출되어 나오는 미의 고통스런 자정작용(自淨作用) 때문에 그녀의 미를 더욱 높게 평가한다. 그녀가 끝없이 정신적 고통을 인내해 간다는 사실은, 그가 이상적 미의 전제로 생각하는 선량함이 그녀에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녀의 고통에 대한 피쉬킨의 절실한 공감은 그녀로 하여금 꺼져가고 있던 순결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사실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옳게 봤어요(Я ведь и в самом деле не такая, он угадал. т. 8. с. 100)”라는 나스따샤의 말 속에는 그녀에 대한 피쉬킨의 내면적 목소리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미의 현현(顯現)을 볼 수 있다고 믿는 피쉬킨의 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움마저도 오히려 훼손하는 여타 인물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여타 인물들 중 나스따샤의 미를 궁극적으로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로고퀸이다. 피쉬킨이 미의 통합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고퀸에게 미는 완벽하게 충동과 감각으로만 존재한다. 그는 자신에게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나스따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하려는 욕망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10만 루블로 그녀를 산 후 “그녀는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Моя! Всё моё! т. 8. с. 143)”를 외치는 그의 모습은 『예브게니 오네긴(Евгений Онегин)』에서 따찌야나(Татьяна)를 향해 “그녀는 내 것이야(Она моё)”¹⁴⁾를 외치는 꿈 속의 괴물 두목 오네긴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로고퀸에게 나스따샤의 정신적 고통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그녀의 미 역시 그의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¹⁵⁾

13) 그녀가 지냈던 이상적 미의 상태는, 순결을 잃기 이전 그녀가 살았던 ‘기쁨의 마을(отрадное село)’이란 단어 속에서 상징화된다.

14) Пушкин, А. С.(1995)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ёх томах』, Иваново: Фора, т. 3, с. 87.

15) 로고퀸이 이렇듯 미를 감각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반대인 ‘추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수의 죽음을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고통스런 죽음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에서 미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장 인물들의 태도는 나스따샤의 응접실에서 행해진 '추악한 이야기 고백 놀이'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일생동안 해왔던 악행 중 가장 추악한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이 놀이는 페르드이센꼬(Фердыщенко)로부터 시작해 예뻐친, 툃스끼(Тоцкий)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리즈를 구성한다. 모든 이들의 공분을 사는 페르드이센꼬의 이야기는 사실 놀이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것이었다. 그는 세 사람 중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추악한 행위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추악한 행위는 항상 매우 지저분한 법이라오(Самые скверные поступки и всегда очень грязны, т. 8. с. 124)"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는 '병적이지 않은, 소박한 속물'로 평가될 수 있다. 최소한 그는 윤리적 추악성을 이야기의 외적인 아름다움 속에 감추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뻐친과 툃스끼에 오면 그들의 이야기는 추악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나 자기 과시를 위한 꾸며진 고백으로 변질되고 만다. 예뻐친은 분명히 뿌쉬킨의 『스페이드의 여왕(Пиковая дама)』에서 따왔을 '우발적인 노파살해'의 모티프를, 툃스끼는 『눈보라(Метель)』에 근거가 있는 '우연에 의해 엇갈린 사랑과 그로 인한 남자의 죽음'이라는 구조를 차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뛰어난 문학적 만족감을 가지고(с особенным литературны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т. 196)", "가다듬어서(обработал, т. 196)", "비범한 위엄을 보이며(с необыкновенным достоинством)", "친절한 목소리(любезным голосом)"로 얘기하려 시도한다. 결국, 문학화되면서 세련되어졌다는 외면적 특징과는 달리, 그들의 이야기 내부에는 진실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채 위선적 속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⁶⁾ 선과 악의 극단 속에서 방

홀바인의 그림이 이빨리뜨와 피쉬귀에게서 생명과 신앙의 가능성을 빼앗아 갔다면, 로고진은 그 그림의 정신적 내용과는 상관 없이 그것을 보는 것에서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На эту картину я люблю смотреть, т. 8. с. 182). 미에 대한 로고진의 이러한 태도는, 미와 추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수용자의 문제일 뿐 대상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주관주의적 미론'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미란 사물들 그 자체 속에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한 흄의 언급은 주관주의적 미론의 대표적 테제로서 이 점을 말해 주고 있다. Hume, D.(1965) 『Of the Standard of Taste and Other Essays』, New York: Bobbs-Merrill Company Inc., p. 6.

16) 볼로진(Э. Ф. Володин)은 세 이야기 중 툃스끼의 이야기가 발단, 전개, 절정, 파국, 대단원의 구조를 가질 만큼 대단히 세밀하게 문학적으로 가공되었음을 지적한다.

황하는 병든 영혼으로 인해 스태브로긴의 수기가 아름다움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면, 예쁜친이나 뜯스끼는 그러한 방황조차 없기에 가공된 거짓의 아름다움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한 미에 대해 이렇게 혼동된 가치관을 갖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형상은 실상 작가의 계획안에서 이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Главная мысль романа : Столько силы, столько стра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поколении, и ни во что не верует. Беспредельный идеализм с беспредельным сенсуализмом. Жажда красоты и идеала и в тоже время неверие, или вера, но нет любви (т. 9. сс. 166-167. 밑줄은 필자가 한 것)

이 소설의 주요 사상 : 현재 세대에서 넘쳐나는 권력과 욕망, 그리고 아무 것도 믿지 않는 것. 끝없는 이상주의가 끝없는 감각주의와 같이 있다. 미와 이상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동시에 믿음은 없다, 혹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은 없다.

자기 합리화와 기만을 포장된 아름다움 속에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태도는,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 미가 단순히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감각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자신이 했던 놀이에 대해 “모두가 부끄러웠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흥겨웠어(всякому стыдно стало... В целом, впрочем, было првесело. т. 8. с. 120)”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감각주의가 여실히 묻어 나고 있다. 감각적인 미에 ‘매몰’된 로고권이 ‘소박한 속물’이라면, 감각적 미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이용하는 이들은 ‘병적인 속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파토스는 피쉬긴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이 예술 작품 속의 이상은 현실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스토예프스끼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피쉬긴과 현실의 관계를 작가가 어떠한 구도 속에 그리고 있었는지는 조카 소냐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 내용 속에서 나타난다.

볼로진은 이러한 지나친 꾸밈이야말로 뜯스끼의 이야기를 셋 중 가장 위선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Володин, Э. Ф. (1985) “Пети-жэ в 『Идиоте』”, 『Достоевский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т. 6, с. 77.

Главная мысль романа — изобразить 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екрасного человека. <...> На свете есть только од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прекрасное лицо — Христос, так что явление этого безмерно, бесконечно прекрасного лица уж конечно есть бесконечное чудо. <... ...> из прекрасных лиц в литературе христианской стоит всего законченнее Дон Кихот. Но он прекрасен единственно потому, что в то же время и смешон. <...> Жан Вальжан, тоже сильная попытка, — но он возбуждает симпатию по ужасному своему несчастью,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 нему общества. У меня ничего нет подобного...

(т. 28. кн. 2. с. 251)

이 소설의 주요 개념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은 그리스도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끝없이 아름다운 인물의 현상은 물론 끝없는 기적일 뿐이지. <...> 기독교 문학의 아름다운 인물 중 가장 완벽한 것은 돈키호테이지.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것은 단지 동시에 우습다는 이유 때문이다. <...> 장발장도 강력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가 공감을 사는 건 자신의 불행함과 사회에 의해 그에게 가해지는 불공평함 때문이다. 나예겐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은 전혀 없단다...

위의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작가가 미쉬긴의 아름다움을 구상할 때 옆두에 두었던 것은,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며 평가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절대성이나, 현실에 의해 부당하게 대접받는 돈키호테나 장발장이 던져주는 희비(喜悲)의 파토스가 아니었다. ‘완벽한 절대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문학화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돈키호테나 장발장은 세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설정한 주인공은 이상과 현실의 차원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인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점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예술을 지향했던 작가의 문학관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미쉬긴과 현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가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다음 인용문 속에서 나타난다.

Я всегда боюсь моим смешным видом скомпроментировать мысль и главную идею. Я не имею жеста. Я имею жест всегда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й, а это вызывает смех и унижает идею. Чувства меры тоже нет, а это главное ; это даже самое главное... (т. 8. с. 458)

나는 나의 우스운 태도가 생각과 주요 관념을 훼손할까봐 두렵습니다. 나예겐 제스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항상 상황에 안 맞아서

비웃음을 불러일으키고 관념을 격하시키게 됩니다. 절제의 감각 역시 없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피쉬킨의 고민은 현실적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 즉 자신의 '형식미의 부족'이 현실 세계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외적인 미를 자신의 추악함을 포장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피쉬킨의 태도이다. 형식미의 부족이 피쉬킨에 의해 인식되는 첫 계기는 1부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겠다는 그의 진심어린 맹세에 대해 나스따샤는 "자신도 아직 유모가 필요한 주제에 결혼이라니(Где ему жениться, ему самому ещё няньку надо. т. 8. с. 144)"라고 부르짖는다. 그녀의 말은 '고통에 대한 존경'이라는 피쉬킨의 이상적 관념이 남녀간 결합의 현실적 형식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사실 이 장면이 1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러시아로 갓 돌아온 청년 피쉬킨의 모습이 1부의 주 내용이라면, 2부 이후는 그가 러시아를 경험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부 이후 피쉬킨의 정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은 당연히 1부 마지막에 배치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작가가 피쉬킨의 현실감각을 2부 이후에서 어떻게 형상화할 지에 대해 고민했던 것은 여러 번에 걸친 계획안 변화와 편지 내용 속에 나타난다.¹⁷⁾ 피쉬킨이 러시아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가 1부와 2부 사이 6개월 간의 기간 동안 빼제르부르

17) 이러한 점은, 2부 이후의 피쉬킨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느낀 어려움을 마 이꼬프에게 토로하는 다음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Ещё не начатая* 3-я часть романа, которую я обязался честным словом доставить к 1-му апрелю в Редакцию. Вчера ночью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енный (в 3-й уже раз) весь план 3-й и 4-й части(а стало быть, ещё три дн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до употребить на обдумывание нов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усилившееся расстройство нервов и число и сила припадков, — одним словом, вот моё положение! (т. 28. кн. 2. с. 273). 3부(최종본에서의 2부—필자 주)는 편집자에게 4월 1일까지는 보내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건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소. 어젯밤 3부와 4부의 전체 계획이 극단적으로(이것으로 벌써 3번째요) 바뀌었소(따라서 새로운 상황 설정을 하려면 앞으로 3일은 더 걸릴 것 같소) ; 신경의 혼란 그리고 발작의 정도와 횡수가 잦아지고 있소, — 한 마디로 이게 나의 처지요!

그(Петербург)를 떠나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게 된다는 작가의 설정에서 암시된다. 이 기간이 피쉬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아글라야에게 이 기간 동안에 써 보냈던 편지의 의미에 대해 피쉬킨 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Любовное письмо? Моё письмо-любовное! Это письмо самое почтительное, это письмо из сердца моего выпилось в самую тяжёлую минуту моей жизни! Я вспомнил о вас как о каком-то свете... (т. 8. с. 359)

연애편지였다구요? 내 편지가 연애편지였다니! 그 편지는 가장 정중한 편지였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의 마음에서 그대로 넘쳐 나온 겁니다! 난 그 때 당신을 어떤 광명과 같이 상기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편지를 써 보낸 이유에 대해 피쉬킨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 (у меня явилось неудержимое желание напомнить вам о себе. т. 8. с. 157)”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피쉬킨이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노력의 결과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형식미가 진실성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자신에게는 그러한 형식미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한다. 이 점은 그의 언어 스타일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1부에서의 피쉬킨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타인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전형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과 같은 그런 사람일 리 없다(Разве вы такая, какую теперь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т. 8. с. 99)”라는 그의 외침은 나스따샤의 내면의 목소리에 파고들어 그녀를 뒤흔든다. 그러나 상대방의 영혼과 직접 교감하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이러한 진실한 언어들은 그 지나친 날카로움 때문에 부작용을 낳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부드러움이란 없군요 ; 단지 진실만 중요할 뿐이니, 그렇게 되면 부당해지기 쉬워요(у вас нежности нет; одна правда, стало быть-несправедливо т. 8. с. 354).”라는 아글라야의 언급은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의 언어 습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바흐친(М. Бахтин)은 피쉬킨 언어의 특성으로서 “타인의 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하는데¹⁸⁾, 이러한 특성은 주로 2부 이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의 말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백치적(白痴的) 속성으로 치부되었던 자신의 직설적 언어 습관에 대한 피쉬킨의 고민이 내재한다.

피쉬킨이 현실을 중요시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현실을 이상으로 이끌어 가는 시급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실이 그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될 때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자신의 이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혁명가의 입장에 서는 것뿐이지만 그것은 피쉬킨에게 곧 미를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선택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假裝)된 형식미에 만족하여 안주하며 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현실은 결국 피쉬킨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게 될 뿐이다. 예쁜친가 야회의 장면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꽃병을 깨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아 주는 귀족들의 '세련됨'에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낸다.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동한 피쉬킨은 '미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이란 주제로 장광설(長廣舌)을 펼친다. 미의 이상에 대한 이 장광설의 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완성된 미를 느끼는 간질 발작으로 이어진다. 간질의 형식적 추함은 피쉬킨의 미가 결코 외적인 미의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그것은 그를 향한 귀족들의 세련된 비웃음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그의 비극은, 기절한 나스따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글라야를 따라 나서지 못하는 장면에서 극적인 파토스를 형성한다. 한 여인만을 택해야 한다는 현실의 형식은 두 여인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글라야에 대한 인간적 사랑의 감정이 나스따샤에 대한 연민의 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그의 태도는 결국 두 여인 모두에게서 그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못은 나에게 있소(я ещё не знаю, в чём именно, но я виноват. т. 8. с. 484)”라는 피쉬킨의 말속에는 현실과 이상의 와중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그의 심증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참된 마음을 가졌지만 분별력이 없는 자나, 분별력은 있지만 참된 마음이 없

18) 바흐쥰, 미하일(1988)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김근식 옮김, 서울: 정음사, 353쪽.

는 자나 바보이기는 똑같지. 이걸 오래된 진리란다(дура с сердцем и без ума такая же несчастная дура, как и дура с умом без сердца. Старая истина. т. 8. с. 69)”라는 리자베따 부인의 말은, 현실과 이상에 대해 모두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 했던 피쉬킨의 ‘분별 없음’을 가장 현실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말이다. 이러한 백치와 같은 성실성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세상의 탓으로 돌리 않은 채 원래의 위치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3. 결 론

『백치』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형상화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미(美)라는 가치였다. 이것은 ‘정신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도스토예프스키적 미 개념은 실상 예술을 통해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고양된 욕구들의 총합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즉 미란 정화(淨化)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이 솟구쳐 나올 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피쉬킨은 그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는 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상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상으로서의 미를 추구하는 그 자신의 태도가 더 소박하고 아름답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세상의 완성을 꿈꾸는 그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미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절실한 목표로는 여기되 결코 초월적 가치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에게 미의 실현은 세속을 경멸하는 자부심 강한 이상주의자의 초월적 몽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스따샤의 훼손된 미 속에서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결한 충동을 보고, 세속의 형식미 속에서도 러시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보려 한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너무나 힘든 과제였다. 그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현실의 인물들이 미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추상적 사실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내적 분열을 겪고 있는 나스따샤와 지극히 현실적인 아글라야는 모두 그들의 외적 아름다움을 보다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의 왜곡 현상은 실상 주변 인물들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충동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외적인 형식미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쉬킨은 이러한 현실을 끌어안기 위해 불가능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절실한 투쟁의 과정은 그가 이상의 차원에서만 사고하고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쉬킨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숙고해 보는 것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Алеша)가 고통스런 회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피쉬킨이 현실 속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완성된 아름다움을 창조해 보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피쉬킨은 도스토예프스끼의 예술관 속에서 현실과 이상이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갖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결코 그것이 현실을 해체하고 그 위로 비상(飛上)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도스토예프스끼의 예술에 있어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대자적(對自的) 사고를 토대로 한다. 이러한 대자적 사고에 의해 정확화된 의식이야말로 미의 이상을 실현하는 본질인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백치’ 피쉬킨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 작품의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작가는 제목 자체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자료

Достоевский, Ф. М.(1972-1990)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Пушкин, А. С.(1995)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ёх томах*』, Иваново : Фора, т. 3.

2. 2차자료

다케우찌, 도시오(1993) 『*미학 · 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옮김, 서울: 미진사.

바흐쥘, 미하일(1988)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김근식 옮김, 서울: 정음사.

주균도(1996) 『*미학에세이*』, 유홍준 엮음, 서울: 청년사.

Бабович, М.(1974) “Судьба добра и красоты в свете гуманизма Достоевского”, 『*Достоевский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т. 1.

Володин, Э. Ф.(1985) “Пети-жэ в 『Идиоте』”, 『*Достоевский :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нинград : Наука, т. 6.

Захаров, В. Н.(1994)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Достоевского*』, Петрозаводск: Изд. Петрозаво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шина, Н. В.(1975) 『*Эстетика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Лосский, Н.(1953) 『*Достоевский и Его Христианское Миропонимание*』, Изд. имени Чехова : Нью-Йорк.

Чирков, П. М.(1967) 『*О Стиле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 Наука.

Hume, D.(1965) 『*Of the Standard of Taste and Other Essays*』, New York: Bobbs-Merrill Company Inc.

Jackson, R. L.(1966) 『*Dostoevsky's Quest for Form : A Study of His Philosophy of Art*』,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Press.

Mochulsky, K.(1971) 『*Dostoevsky ; His life and work*』, tr. Michael A. Miniha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Ozolins, V. K.(1986) “The Concept of Beauty in the Possessed”, 『*Dostoevsky and the Human Condition after a Century*』, edited by Ugrinsky, A., Lambasa, F. S., Ozolins, V. K., New York : Greenwood Press.

Wasiolek, E.(1964) 『*Dostoevsky : The Major Fiction*』, Massachusetts: M.I.T.

Press.

_____ (1973) 『*Fyodor Dostoevsky ; The notebooks for the Idiot*』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The Theme of Beauty in the 『Idiot』 of F. M. Dostoevsky****Baik, Joon-Hye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which Dostoevsky planned to discuss in the novel 『Idiot』, was the theme of 'beauty'. This concept of beauty is not really matches the concept of usual physical or mental beauty. The 'beauty' for Dostoevsky is the revelation of the sum of all the purified human desires. That is, beauty for Dostoevsky is the thing which man can encounter at any moment when he is going to express his desires in the spirit of art. Myshkin in the 『Idiot』 is the hero who expresses such a concept of Dostoevsky. His ideal is revealed in the fact that he searches beauty in everything around himself and that he dreams of the perfectness of the world on that bas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m is that he understands beauty on the human basis. He doesn't idealize beauty from the viewpoint of an idealist who ignores the human world, but sees it as a kind of remedy which can heal and correct the world. So he is destined to be situated not on the metaphysical place but among the ordinary people who surround him.

His tragedy is that his desire to embrace this world can not be understood by the people in this novel. They are the beings who don't recognize that beauty exists in and around themselves and who, on the contrary, even destruct and deform the existing beauty around themselves. So the fate of Myshkin can be compared to that of Alesha in the 『Brothers Karamazov』 who goes through the path of agony. Such an agonizing path is necessary for the hero of Dostoevsky because the ideal beauty of Dostoevsky can be accomplished only when man ponders on himself and others without pre-

judice. The title of this novel “idiot” implicates the intention of Dostoevsky who requires that we readers also read this novel from the purified point of view of Myshkin.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2. 10. 10
 논문심사일: 2002. 11. 1~2002. 11. 10
 심사완료일: 2002. 11. 20

필자약력(백준현)

소 속: 상명대학교 교수
 출 신: 서울대학교
 전 공: 19세기 러시아 소설
 대표논문: “도스토예프스키 초기작들에 나타난 인간관”
 (노어노문학, 2000)
 대표저작: